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 리더 입증

전북대 한운봉 교수, 나노소재 분야 세계 석학 인증 세계 0.2%만 선임하는 미국세라믹학회 펠로우 선정 국내 연구자 유일... 차세대 태양전지 등 나노 연구 주도

전북대학교 한운봉 교수(화학공학부)가 미국세라믹학회(American Ceramic Society) 최고 영예인 펠로우(Fellow·석학)에 선임됐다. 한 교수는 이번 선정으로



나노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자라는 인증을 더욱 확고히 했다. 1888년에 창립된 미국세라믹학회는 현재 70개국에서 11,0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역대 펠로우의 추천과 펠로우 선정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세라믹재료 분야의 학문과 연구개발 분야에 탁월한 공헌자를 매년 회원 중 0.2% 이내만 펠로우로 선임한다. 올해에는 20명을 선임했는데, 국내에선 한 교수가 유일하다. 한 교수는 1988년 미국 유타대학교

금속공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LG금속(현 LS-Nikko 동계련)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다가 1991년부터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 교수는 금속산화물 및 세라믹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노소재의 제조와 이를 응용한 차세대 태양전지, 성인병 진단용 바이오센서, 투명 잉크개발 등 첨단재료 개발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SCI 논문 290여편, 국내외 15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2010년엔 세계 최초로 '금속산화물 나노구조 및 응용'(Metal Oxide Nanostructures and Their Applications)에 관한 총 5권의 핸드북을 출판(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하는 등 나노소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MCARE학술상(2019), 우상일재료상(2018), 아시아에너지기술상(2017), 부돌프 마르커스상(2016), 미국세라믹학회 글로벌엔베스터상(2016), MRS 과학강연 시리즈상(2014), 이달의 과학기술자상(2011, 교육과학기술부), 전북대 학술상 대상(2008, 2009) 등을 수상했으며,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 의해 세계 100대 과학자로 4번(2005, 2011, 2014, 2015)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전북대 EKI2 플러스 미래에너지소재소자사업단 단장과 대학원 반도체화학공학부 학부장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미래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선발 면접고사 실시 유·초·중등교사 154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4일 유·초·중등교사 154명(유치원 24명, 초등 54명, 중등 76명)을 대상으로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선발을 위한 면접고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선발을 위한 면접고사는 교(원)감 자격연수 지명 예정 인원의 110%에 대해 실시하며, 전년도 면접고사 합격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중 이전 면접고사 불합격자와 사전조사 및 공개적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한다. 심층면접은 교직기간 중 총 2회까지 가능하며 탈락 될 경우에는 이후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평가 내용은 교직과 교양 각각 1분항씩이며 교(원)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평가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소명을 위한 관련 문항이 추가 된다. 채점결과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는 합격,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2019년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면접고사에 합격한 교사로 대상으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 한편, 합격자는 21일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10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단들과 전북도의회 의원 간 지역교육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주교육발전 협력 체제 강화 '속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10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단들과 전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소속) 간 지역교육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전주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항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이번에 처음 시도한 도의원과 협의회의 만남이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었으며, 또 도의원의 역할과 지역 사회와의 협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의원은 "공통 질문, 개별 질문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전주교육 발전을 위한 열정에 놀랐다"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만전'

도교육청, 관리 실태 집중 점검 등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이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린 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로, 경찰청은 6월부터 학원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학원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 하차확인장치 설치 독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사항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매뉴얼 배포 등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 -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맞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고, 네트워크 기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캠퍼스문화지원동에서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과 김강석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회장 등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업무협력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사업성과 확산 및 상호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열정 교양 강의 운영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익산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7월 17일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열정 교양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열정 교양 강의에서 자전거 여행작가 김민형(예명:만청이)는 '청춘,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캐나다를 시작으로 남미의 땅끝마을 '우수이아'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677일 동안 장장 20,300km 15개국을 여행다니며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청소년 열정 교양 강의'는 지난 5일 이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여산고, 이리여고, 삼기중, 용안중, 황등중, 이리영등중, 원광고 등 총 8개의 익산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이현규 관장은 "이번 청소년 열정 교양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불을 지피고, 삶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